

한평생 선학에의 열정이 피운 꽃

禪學

동국대 선학과 현각 스님 퇴임 기념 전집 출간

『逐鹿者不顧兔(축록자불고토)』 (사기) 회남사 설리훈 편이 글로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2월 정년퇴임한 현각 스님의 연구실 책상에는 이 글이 항상 붙어 있다. 글처럼 스님은 30여 년을 조계종립 동국대 교수로, 평생을 선학자로 학문의 외길을 걸어왔다.

〈최현각 선학전집 편찬위원회〉는 2월 20일 서울 소피텔에서 〈최현각 선학전집〉 분정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위원 월서 스님과 前 법주사 주지 지명 스님 등 금오문도회 스님, 수도당 선원장 원인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 김용표·고영섭 교수 등 동국대 교직원과 현각 스님의 제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원로위원 월서 스님은 축사에서 "현각 스님의 은사 故 혜정 스님(1933~2011)은 '현각 스님은 책을 손에 쥐면 놓을 줄을 모른다'고 자주 말했다"며 "현각 스님은 선학의 체계 확립을 통해 금오 스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선양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각 스님의 학문 열정은 정년 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은 축사를 통해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스승 노릇을 할 수는 없다. 현각 스님은 시류에 영합되기를 거부해온 학자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선학전집〉 10권 발간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꽃을 피우듯 엄격한 자기성찰이 있어 가능했다"며 "〈선학전집〉에는 현각 스님의 학문에의 진지한 열정, 확고한 출가정신이 오히려 살아있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학생으로 9년, 교단에서 30년을 남산 기슭에서 지내왔다. 〈선학전집〉은 내 정직과 학문의 결정체이다. 지도를 잘못 그리면 뒷사람들이 길 찾는데 혼돈을 겪는다는 생각으로 정면에서 정면으로 걸어온 결과물이다"라고 설명했다.

편찬위원회는 "현각 스님은 후학 양성을 일생의 원력으로 삼고, 선학 체계 정립과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작업을 유일한 과업으로 삼았다. 이 같은 스님의 절저한 사명감과 학문을 향한 추상 같은 태도가 있었기에 〈선학전집〉을 엮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종비생 최초로 동국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학문에 매진해 왔다. 불교와 선학 발전과 관련한 교내의 보직 등을 거처며 동국대의 건학이념 구현에 힘써왔다. 정각원장 재임시에는 교내에 3000등과 불종장엄물을 제작·설치했고, 〈정각원보〉를 창간해 동국대 구성원들에게 정법을 전파했다. 스님은 불교지도자 양성기관인 동국대 불교대학원 초대 교학부장을 맡아서는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스님은 2000년 한국선학회 초대회장에 취임한 이래, 한국선학의 학문적 토대 확립을 위해 기여했다. 현각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마니사에는 '마니불교 아카데미'를 만들어 〈금강경〉 등 불교경전을 비롯해 〈노자〉 〈장자〉 등 동양고전을 불교적 시각에서 강의해왔다.

〈선학전집〉은 선학연구에 매진하고 강의와 학회 활동을 통해 축적된 현각 스님의 학문적 성과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전집은 〈선학의 이해〉 〈선어록 산책〉 〈선문선답〉 〈선문보장록〉 〈선 사상론〉 〈선 수행론〉 〈한국선론〉 〈벽암록의 세계〉 〈한국을 빛낸 선사들〉 〈선심으로 보는 세상〉 등 11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선학



2월 20일 서울 소피텔에서 열린 선학전집 분정법회에서 현각 스님(왼쪽)이 제자대표 청원 스님(오른쪽)으로부터 전집을 전달받고 있다.



현각 스님 평생의 학문성과를 10권으로 갈무리한 〈최현각 선학전집〉

의 이해〉 〈선어록 산책〉 〈선문선답〉 〈선문보장록〉 〈벽암록의 세계〉 〈한국을 빛낸 선사들〉은 스님이 기 출간한 단행본을 수정·보완해 재출간한 것이다. 〈선 사상론〉 〈선 수행론〉 〈한국선론〉은 스님이 학계에 발표해 온 수십 여 편의 논문을 엮어 주제별로 묶어 단행본으로 편집한 것들이다. 〈선심으로 보는 세상〉은 스님이 일간지와 교계 신문 등 다수의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시기별로 정리해 책으로 묶은 것이다.

"길손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대

해를 향해하는 항해사도 정박하고자 하는 항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세계에는 무궁함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여기가 연구의 귀결점이라고 단정한다면 스스로 사유세계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혹자는 〈최현각 선학전집〉 10권이라는 말에 기업을 토하기도 한다. 과학자이자 뉴턴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칭송하는 말에 '백사장에 바늘 하나가 떨어진 것과 같다'고 겸손해 했다.

어느 계곡의 작은 웅덩이에서 시작된 물이 넘실대는 대해를 이루듯, 본 전집이 선학이 학(學)으로서 자리 잡는데 웅덩이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舍十方)이라는 말이 위안이 된다. 작은 티끌 가운데 사방세계가 들어있다고 했으니, 이 전집도 작은 티끌이 되어 정신세계에 스펙트럼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최현각

최현각선학전집 | 최현각 저 | 최현각 선학전집 편찬위원회 엮음 | 동국대 출판부 | 1권 25만 원(각권 2만 5000원)

조동섭 기자 cestana@hyunbul.com

불교학자 유전학자를 만나다

30년 지기의 담론

불교와 과학이 만나면?

통합과 융합의 시대인 지금, 새롭다고 눈길을 끌기 보다 이제는 진부해져 버린 주제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과학의 만남이 눈길을 끄는 것은 형이상과 형이하의 대척점에 서있는 두 분야의 대화는 시도만으로도 경이롭기 때문이다. 매번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라거나 '과학으로 불교 교리가 설명된다'는 뻔한 결론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 책에 눈길을 주는 이유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서로 다른 이종(異種)의 교배에서 나올 변태(變態)를 목격하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

책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의 저자 사이토 나루야 교수는 도쿄대 생물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유전학자이다. 공저자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도쿄대·美 버클리대에서 유학하고 하나조노대 교수로 있는 불교학자이다. 두 저자는 고교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30년 경력의 소위 '절친' 사이이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밀린다왕문경〉에 빗대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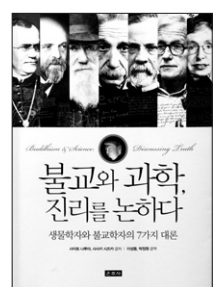
〈밀린다왕문경〉에서 그리스식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간던 메난드로스 왕과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나가세나 장로는 서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지만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불꽃튀는 논쟁을 벌인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참모습'. 〈밀린다왕문경〉은 이들의 토론을 기록한 책이다.

사사키 교수는 "진구 사이토는 유전학자 임에도 〈밀린다왕문경〉을 즐겨 읽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책은 〈밀린다왕문경〉의 애독자이자 '서로 다른 세계관의 접촉'을 흥미있어 하는 두 학자가 각각의 전문분야에 입각해 의견을 교환할 기회였다"고 말한다.

책은 불교에 조예가 깊은 과학자(사이토 교수)와 과학을 존모하는 불교학자(사사키 교수)가 종교와 과학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내고자 2년여에 걸쳐 고심한 결과물이다.

저자들은 "과학은 발전하고 종교는 쇠퇴한다"는 지난 세기의 통념이 고무하게 느껴지는 시대. 그렇다고 이제부터는 종교부흥의 시대이라고 목청을 높일 만큼 순진하지도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진정한 합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과학적인 시각'과 '일평생 유지되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사사키 시즈카 공저
이성동·박정원 공역
운주사
1만5000원

는 생·사에 대한 일관된 철학'이 양립 가능한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두 교수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진정한 합리성'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1부에는 두 저자가 상이해 여섯 가지 담론의 테마를 정한 후 사이토 나루야가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사사키 시즈카가 '불교학자의 관점'에서 각 테마를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섯가지 테마는 ▷물질과 정신 ▷의식과 무의식 ▷생과 사 ▷과학과 종교의 절대적 존재 ▷과학과 종교의 공통점 ▷과학과 종교의 미래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로의 논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원고자 완성되기

종교와 과학의 공통·차이점 찾기
〈밀린다왕문경〉 비교될 만남
물질과 정신·생과 사 등
여섯가지 테마별 견해 정리

전까지는 상대방이 쓴 글은 읽지 않기로 했다. 1부가 완성되자마자 두 저자는 만나서 대화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제2부 일곱 번째 담론이라는 타이틀로 담았다.

담론에서 사이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종교 집단은 사회의 일반도덕에 편승해 이를 장려하는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쉽게 받아들여지는 윤리관을 신도들에게 주입하는 종교는 변장하게 됩니다."

이를 사사키 교수는 "무던하게 착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다"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말을 잇는다.

"이제부터 종교 관계자들은 믿음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자유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할 겁니다."

책을 넘기면 두 학자의 대론과 대답을 통해 이 세계와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과학과 불교의 입장을 통찰하고,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가장 아름다운 남사에담춘 보세요

이호신 화백의 멋고을 그림이야기



진정한 나를 찾다
남사에담춘 뜨란
1만8000원

"신은 혼란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제는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주로 인용하는 경구이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도시생활로 심신이 옥조일 때마다 자연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도시인에게 따뜻한 위로를 안겨줄 책, 이호신 화백의 마을 그림책 〈남사에담춘〉이다.

저자는 십수년간 전국을 순례하며 한국

의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 공간이자 이웃이 서로 유대를 맺고 살아가는 터전인 마을을 오늘의 관점에서 새로운 표현양식을 통해 조명해 온 것이다. 최근 저자는 신정 단성면의 남사에담춘으로 작업실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엮어 책으로 냈다.

남사에담춘은 700여 년 전 고려말 형성된 마을로, 2011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



운 마을 제1호'로 선정된 곳이다. 책에는 남사에담춘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생활산수화 101점으로 화현해있다.

조동섭 기자

제1회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학인모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범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의 내용

-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서, 종승, 조석예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 북 등 사물 다루는 법.
- 중급** : 시련, 대령, 관육,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훈소, 봉칭(깃소리), 39위, 복청계, 고훈청, 현과계, 진령계, 칠연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제, 긴소리, 짧은소리
-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제,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제, 수록제, 종사이은, 패불이은, 종사영반 화청, 궁덕계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소 : 김해시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범당
- 주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주 : 민지호 010-4466-3575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3월 2일(금) 14:00
개강 : 3월 8일(목)

-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하나?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수가 있다.
-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히는 가정
-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속성반 : 대상 - 범당, 포교원, 철학관 운영자

명리, 육효 초보반 모집

백암역리원

02) 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랑지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는행) 옆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양자물리학의 거장 킨슬로우 박사가 창안한 <즉각치유법>과 氣치유법 비교 강의

당신도 치유발전기(a healing dynamo)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감성적 고통(pain)을 줄이며 치유를 촉진하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치유법입니다
파트너와 시술자 모두에게 유익한 치유법입니다
자가치유에 매우 적합한 치유법입니다
배우기가 쉽고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저렴합니다

- 교육기간 : 1개월 (주 1회×4주)
- 개강 : 2012. 3. 10(토) 오후 2시
- 모집반 : 토요일반, 일요일반, 평일반(주야)
- 교육장소 : 부산직할시동래구명장동화산여고입구 영산무지개@상가202호 (세계자연치유학회부산지회)
- 문의 : 010-6521-7090 / 051-527-7090